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절대망대 -복음으로 여는 레위기-

레위기 11:45, 히브리서 7:27-28

정운돈 목사님

* 레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 히7:27-28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악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현장을 위해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기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냐? 깨끗해지라는 말이다. 더러운 게 옷에 묻어있으면 대통령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더러워졌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의 신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신분을 세탁을 해야 한다. 마귀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게 거룩이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자꾸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삶도 더러워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있다. 육신과 삶이 깨끗해지는 시작은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영혼이 깨끗해질까?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모세조차 그 사실을 몰랐지만 여호수아와 갈렘은 알고 있었고 결국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지금 믿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로 결론났다는 말은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된다는 말이다.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 기준이 말씀이다. 지난 주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다. 기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지 스스로를 발견해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하나님 자녀지만 행동이 항상 어린 아이 같아진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꿀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얻기 원하신다. 복을 얻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누리는 게 먼저다. 복음의 사람은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제 나의 믿음에 발판이 된다는 말이다. 운동선수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진다. 우리에게 완전복음은 흠 없고 티 없이 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거룩해야 하나. 세계복음화하는 영적 국가대표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심같이 완전한 복음이 나의 체질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오늘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과 규례를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의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알려

주고, 후반부에서는 정결법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윤리, 도덕적인 생활규범에 대하여 말씀한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했지만 거룩해야하고 문화도 절기로 바꾸라는 이야기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7가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절대망대이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제사와 정결법과 생활규범과 절기를 알려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613가지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인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참된 희생제물이시고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절대망대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망대들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그 첫 번째 방법은 제사제도이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다. ① 첫 번째는 번제다. 번제는 원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제사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 전체를 불살라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불사르는 것을 상징한다. ② 두 번째는 소제이다. 소제의 제물은 곡물이나 고운 가루를 드리게 되어있다. 곡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단순한 감사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③ 세 번째는 화목제이다.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3가지가 있다. 이 제사는 감사와 서원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의미하고 있다. 말로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감사에는 항상 표현이 있다. 성경에서도 이 원리를 철저히 표현한다. 그래야 화목하게 된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서원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를 이유 없이 구원해주신 감사가 생기게 된다. 그게 서원제와 낙헌제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유 없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감사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이유를 가지고 감사한다. 사람들은 주로 재밌는 것과 맛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더 기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에 더욱 감사해야겠다.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진실로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게 화목제다. ④ 다음은 속죄제이다. 속죄제는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다. 속죄제는 각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와 가격이 달랐다. 지도자일수록 죄가 크다. 지도자와 리더가 실수하는 것과 일반인이 실수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지도자가 실수하면 더 큰 배상의 제물을 드렸다. ⑤ 다음은 속건제이다. 속건제는 도둑질과 같이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속건제는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과 화해가 병행되어야 하는 제사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해 놓고 하나님께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 이게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하는 체제다.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가 거룩해져야 한다. 속건제는 사회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정리해 준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다. 그 4가지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이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이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화제는 뜨겁게 드리는 예배다. 제가 어릴 때는 기도원에 가서 방학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때는 뜨겁게 기도할 시간표였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봤다. 이제 복음을 받고 보니 어린 아이 수준의 기도였다. 물론 이렇게 뜨겁게 드리는 찬양과 예배도 필요하다. 요제는 춤추어 찬양하는 예배다. 거제는 거룩하게 손을 높이 들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전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예배를 상징하고 있다.

(2)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다른 망대는 절기제도이다. 레위기에는 7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 이 절기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여러 가지 면을 예표하는 내용이

다. 이 절기들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다. 절기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추석, 설, 명절이 있으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이 생긴다. 예배하고 주일성수하고 헌신하는 모든 형식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도록 한다. 그 7대 절기의 이름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절기이다. 이 절기로 출애굽사건을 기념한다. ② 다음은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한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졌다. 즉,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다. 이 날은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이다.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한다. ③ 초실절은 홍해를 건너 후 드러진 날이다. 이 날은 무교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 이튿 날' 즉, 일요일이었다. 이것은 일요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안식 후 첫 날, 제8일이다. 성경은 항상 안식 후 첫 날을 말한다.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 가족의 수도 8명이다. 주일은 부활이다. 성경을 깊이 안다면 주일을 지켜야 한다. ④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즉, 이날은 홍해를 건너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 오순절 날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다. 신약시대에 오순절은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며,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파종절은 7월 1일이고 이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이다. ⑥ 대속죄일은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상징하는 절기이다. 왜 대속죄일을 만들었을까? 대속죄일에 잡는 한 마리의 양이 모든 죄를 속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백성이 구원받음을 상징한 것이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었다. ⑦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 그리스도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이다.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졌다.

현대교회는 제사가 예배와 각종 집회로 바뀌었다. 즉, 지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복음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다. 모든 다양한 제사가 수요예배, 금요일예배, 다락방, 성경공부로 바뀌었다. 우리는 365일이 주일이다.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 모이고 매일 복음 전해야 한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성전에 모여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기에 때문에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 현재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의 이름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고 우리 전도협회에서 지키고 있는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3대 성회는 세계선교대회, 세계산업인대회, 세계렘넌트대회이다. 이걸 교단마다 다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돕고, 산업인들이 세계복음화하겠다고 하고,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이 없다. 이게 다 절대망대다. 예배에 성공해야 행복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행복자가 되지 않으면 정복자가 될 수 없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있다.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 성공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천만 배 낫다.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축복이다.

(3)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적인 망대는 성일과 거룩한 안식의 해이다. 즉, 그것들은 안식일, 대속죄일과 안식년, 희년제도를 지켰다. 현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8일인 주일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무슨 주일이 많다. 신학교를 후원하는 RTS주일, RU주일 같은 날들이 많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주일이다. 이러한 안식일과 안식년의 제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과 천국에서 누릴 참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안식제도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병이 사라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복음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망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어떠한 제사와 절기와 종교와 지식과 철학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생각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 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어도 일 년이면 365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망대를 주셨다.

(1)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절대망대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절대망대이다. 그 어떤 제사와 제물과 율법으로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율법과 제사의 의미를 알면 구원받는다. 그들은 불완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

(2)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라는 사실이 절대망대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고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자이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박살내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왕이다. 이게 절대망대다.

(3)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신 7대 여정이 우리들을 온전히 거룩한 성도와 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드는 절대망대이다. 겨우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다. 온전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한다. 그 7대 여정인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신앙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화다.

(4) 네 번째로 3.9.3의 기도와 언약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절대목표이고 절대망대이다. 3.9.3기도는 무엇일까? ① 3은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고 ② 9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의미한다. 이 9가지는 3초월, 3생명, 3전후무다. 3초월은 하늘보좌, 시공간초월, 237 빛을 의미한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한다. 3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텐이다. 3전후무는 나, 교회, 업이다. 나에게, 교회에게, 여러분의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세계 살리는 것이다. ③ 그리고 3은 3시대를 의미한다. 3시대란, 목회자가 70제자를 세우고, 중직자는 70현장에서 문이 계속 열리고, 렘넌트는 70나라를 살릴 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5)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절대망대는 교회이다. 교회 안에는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가 다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절대망대를 통하여 사탄과 3단체와 같이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하겠다. 이 절대목표를 가질 때 할 게 너무 많다. 고민할 시간이 없다. 갈등할 시간이 없다. 금매달 따기 위해서도 10년을 올인하는데,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절대목표가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전도대상자가 언제나 30명씩은 있어야 한다. ‘저 분이 복음 받으면 많은 문이 열릴 텐데’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역하고 포럼하는 팀이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함께 선교현장을 가는 것이다. 절대선교현장의 이야기만 듣고는 알 수 없다.

결론이다.

(1) Covenant. 복음과 언약의 망대이다. 모든 제사와 율법과 종교와 지식과 과학과 철학은 인간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오직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2) Vision. 비전 망대이다. 우리들의 평생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참된 제사와 율법의 의미를 알려 주는 것이다. 다른 비전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237나라를 주셨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라 수는 달라지지만 모든 나라에 참된 제사와 율법의 의미를 전해야겠다.

(3) Dream. 드림 망대이다. 만약 우리들이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24시간 묵상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걸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그러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4) Image. 이미지 망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도 3.9.3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현 망대이다. 만약에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위해 조금만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70나라를 무조건 가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39개국을 가봤는데 더 도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며 응답 따라 세계를 다니게 하신다. 문 여시면 시간표 따라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금도일시대와 세 가지 뜰과 회당의 응답을 이루어 3단체와 237나라를 복음화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레위를 통해서 절대망대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된 레위의 의미를 깨닫고 현장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